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16.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네(2)

정범조는 <소요당집> 서문에서도 '대사의 시는 맑고 환하고 담박하여 마치 허공을 지나는 구름 같고 달이 냇물에 비친 것 같았고, 적절한 언어와 절묘한 비유가 빛이나 모양의 저쪽을 뛰어넘고 있다'고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선사의 시문을 유심히 볼 것 같은 모든 게송이 그저 시인의 절묘한 시구나 기발한 발상을 언어로 나타낸 시가적(詩家的) 입장이 아니라, 앞 모두에 '산 대사가 준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네'와 같이 이미 선가에서 전래된 시를 편안하게 그냥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선사들의 꾸밈없는 마음 자세에서 찾을 수 있고, 오직 후학들을 위한 간절노파 심절만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은 선시의 한 특징이나 여시한 평평법범, 이것이 선장들의 숨겨라 할 것이다.

소요당 태능은 서산 대사의 전법제자이며 오늘날까지 그 문손이 전해 내려오는 후정의 4대 문파 중 하나다. 사명당 유

정은 서산으로부터 경을 잇고 소요당과 편양당 언기는 선을 이었다. 그리고 정관당 일선이 각각 한 파를 이루고 있다.

학인 깨우침 의도로 옛 게송 그대로 사용하기도 진실로 별난것 없는 '別無奇特'...선가의 가풍

한 그루 그림자 없는 나무 一株無影木

불 속에 옮겨다 심으니 移就火中栽

새봄의 비를 가져 오지 않아도 不假三春雨

흐드러지게 핀 저 붉은 꽃 紅花爛漫開

-소요 태능

위의 게송은 제자 露月 守一(제월 수일)

에게 준 5수 가운데 하나이다. 진리를 전하는 염송적 전법계이다. 선가의 선시는 시구가 독창적일 수도 있으나, 진리 자체에 계합될 때, 예부터 전해 오는 선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시를 짓는데 근근이 있기보다, 학인을 깨우치게 하는데 목적이 있게 때문이다. 저 행 풀린 선장의 지극한 간절심 때문일 것이다. 일체가 그대로 실상이요 그것이 그대로 진여 화엄법계이기 때문이다. 앞의 서산대사가 소요에게 준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네'를 구나(騎牛更覓)

牛) 역시 예부터 내려오는 게송을 그대로 주고 있다.

1행의 '한 그루 그림자 없는 나무' 역시 선사의 반상함도의 수사법이다. 무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A는 A가 아니므로 A이다'가 되는 A=?의 표현이다. 즉 '나무' (A)가 '나무 아님' (?) 때 그림자가 없고, 2행과 같이 '불 속에 옮겨다 심을 수' 있다는 표현이 가능해진다. 이럴 때 미담의 시 <내가/똥이 되면/똥은/연꽃이 되고/연꽃은/호수가 되고/내가/호수가

되던/호수는/연꽃이 되면/연꽃은/똥이 되고 (-연꽃이 되면, 전문)>의 시세계와 포개어지며, 무한하고 아득한 저 속의 세계 소식이 3행과 4행에서와 같이 '새봄의 비를 가져 오지 않아도(不假三春雨)/흐드러지게 핀 저 붉은 꽃(紅花爛漫開)'으로 천만번 되 피고 되살아나고 다시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고 차조동시(遮照同時)의 소식으로 오게 된다. 이것을 흔히 문자의 표상 밖이라 하지만, 선장들은 이것 역시 문장 밖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선가에서는 별무기특(別無奇特)이란 말이 있다. 진실로 별난 것이 없음이 선가의 가풍이다. 선시의 맛을 표지하면 단순(單純), 명징(明澄), 청량(淸涼), 표일(飄逸), 검박(儉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 역시 소요의 시에서 주된 풍광을 보여준다.

인조 27년(1649)에 입적을 하며 다음과 같은 열반송을 남기니 세수 88세, 선남 73년이다.

해탈이 해탈아니니 解脫非解脫  
열반 어이 고향이리오 涅槃豈故鄉  
渾槃豈故鄉 淸毛光燦燦  
입으로 칼날을 부딪임이여! 口舌犯鋒芒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호박 마 구이무침

어느 덧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호박요리를 자주 먹게 됩니다.

호박은 그 종류도 다양해서 어린 호박을 애호박, 늙은 호박을 청동호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박은 열매 뿐 아니라 잎과 순도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재료로 이용됩니다. 호박떡, 호박전, 호박찜 등 우리 식탁에 오르는 호박 요리도 다양합니다.

호박에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등을 비롯해 카로틴과 비타민 A, B, C가 풍부로 들어 있습니다. 예

호박은 산후부종·당뇨 등의 약재로 사용

참미는 소화불량·만성장염 치료에 효과

로부터 호박죽이나 호박국을 끓여 먹으면 불면증을 치료하고, 호박씨를 설탕에 넣어 구중제로도 썼습니다. 특히 동지 때 수확한 호박은 산후부종, 당뇨병, 이뇨제 등의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호박꽃은 뱀에 물렸을 때 찜어 붙이거나 나 탕(湯)으로 만들어 씻으면 효과가 있고, 호박을 장복하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비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호박죽은 병후 회복에 좋고 호박탕은 산후병에 좋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호박 마 구이 무침입니다. 마는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영양이 높아 자양강장에 효과가 뛰어나고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당뇨병, 기침, 폐질환 등에 좋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강하여 원기가 쇠약한 사람이 오래 복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참미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어서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위가 약한 사람에게 좋고, 장내 세균 활동을 왕성하게 하

므로 만성장염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가래를 없애고 염증을 삭이고 머리를 맑게 하는 작용도 합니다. 참미를 꾸준히 복용하여 관절염이 나온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체질이 심하게 냉한 사람과 알레르기성 체질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는 날로 먹거나 생즙을 내어 먹기도 하고, 찌서 먹기도 하고, 가루를 내어 먹기도 합니다. 호박 마 구이무침은 마 구이를 애호박과 함께 내는 가을철 영양 음식입니다.



호박 마 구이무침

재료: 애호박, 마, 참살기루, 홍고추, 잣간장

만드는 법

- ① 호박과 마는 얇고 둥글게 모양대로 썰어서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워둔다.
- ② 참살기루는 익반죽해서 애호박과 비슷한 둥근 모양으로 빚어서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홍고추는 채 썰어 두고 잣은 다져서 간장으로 묽게 버무린다.
- ③ 구운 애호박과 마, 참살반죽, 홍고추 채 썬 것을 가지런하게 접시에 담고 그 위에 버무린 잣간장을 부어서 낸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다보탑을 줌다 유안진 창비, 2004년 6천원



언어도단의 불교적인 아름다움 찬미

유안진은 1941년 안동에서 태어나 1965년 <현대문학>에 시가 추천되어 시를 쓰기 시작했다.

시집 <다보탑을 줌다>는 그의 12번째 시집이다. 시집을 읽어가다 보면 간혹 보이는 기독교의 어휘를 통해 그가 '섬겨온 종교'가 가톨릭임을 눈치 챌 수 있다. 그럼에도 그의 시를 가운데 맺은 불교적 제재의 차용이나 상상력의 시에서 발견된다.

그가 섬기는 신앙과 달리 불교적 세계관이 그의 문에 생애적으로 체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구보 제78호 삼국시대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한 장 사진만으로 새 정도이다 언어도단의 아름다움 극치 극치의 신비 신비로운 열매

이 미소 이상은 모두가 계거름질이고

이 미소 이하는 모두가 명쪽질이다 안면근육경력이다.

- '미소론' 전문

시인은 국보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사진을 보고 창작동기를 얻고 있다. 반가사유상은 석가가 출가하기 전 태자로 있었을 때 진리와 인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륵신앙에서는 석가가 돌아가신 후 56억 7000만년쯤 뒤에 천 재지변과 도둑이 들끓는 말세에 오고, 그때 도술전에 있던 미륵보살이 이 세상의 윤회수 아래 내려와서 미륵불이 되어 석가가 못다 구제한 중생을 구제하여 이 세상을 다시 고통이 없는 인락한 이상국토로 정화한다는 믿음이다.

사유의 깊이가 보이고 밝고 순진무

구한 미소와 함께 총명함이 깃들어 보이는 반가사유상의 미소에서 시인은 '새 정토'와 '언어도단의 아름다운 극치'를 보고, '극치의 신비 신비로운 절대'를 보고 있다.

그래서 반가사유상의 미소가 아닌 것은 계거름이고 명쪽질이고 안면근육 경련이라며 공격적인 어투로 반가사유상의 미소를 절대화 한다.

"바람이 현주소다/ 허공이 본적이 다" ('주소가 없다')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그의 시집에는 '나'에 대한 어휘가 두드러지게 많다. 그의 '나'는 시 속에서 "나는 늘 나 때문에 내가 가장 아프단다" ('내가 가장 아프단다')라거나, "나는 본래 없었다" ('나는 본래 없었다')는 등 '나'를 자주 들어 다보고 확인하면서 아집으로 인한 고통과 아견을 벗어나 '무아'에 이르기 도 한다.

계심사 입구 세입동에 고개 열구고 건다가 다보탑을 주웠다 구보 20호를 굶는 똥을 들었다 석존이 영희산에서 범회경을 설할일 때 똥 속에서 찾이나 찬란했다는 다보탑을

두 발 닿은 여자가 열려낸 어더인가 아예 치고 지나간 행인 중에 석존이 계셨는가 고개를 열려준 세상은 아무래나 불구정토 되는가

정신 차려 다시 보면 베알간 구리동전 꺾어진 목고개로 주저 않고 싶은 때는 흉모있는 듯 별 쓸모없는 10원짜리 그렇게 살아왔다는가 그렇게 살아가라는가.

- '다보탑을 줌다' 전문

성불 조각원

www.sungbul.co.kr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홍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귀의 삼보 하시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하지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 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드립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